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 15:10)

1월 22일 공현 후 3주일 / 설명절 · 가해 · 백색

제58-4호

하느님의 축복과 우리의 결심

(마태 6:19-21, 25-34)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며 한 해를 잘 지내기를 기원하는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비단 살아있는 이들 뿐 아니라 새해를 맞이해서 돌아가신 조상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는 하느님을 믿다가 죽은 이들과 지금 살아서 하느님을 믿는 이들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산 이들과 죽은 이들 모두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며, 하느님 안에서 산 이들과 죽은 이들 모두는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돌아가신 조상들과 가족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부족한 탓으로 우리를 구원에서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서로 돕고자 하는 이의 마음을 보시고 너그러이 하느님의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 읽은 민수기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느님의 은혜, 하느님의 은총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에 어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에 어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느님과 눈을 마주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의 눈길이 하느님의 눈길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2독서에서는 인간의 계획이 덧없음을 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느님의 마음과 닮아 있을 때 그 계획은 참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람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우리의 계획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간구에 앞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합시다. 주님의 사랑스런 눈길이 우리 위에 언제나 항상 있음을 믿으며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한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균하 신부)

주일 성찬례 일요일 오전 9시 | 오전 11시

평일 성찬례 화·수·목·금 오전 6시 30분

어린이 예배와 영성체 오전 11시

청소년 예배와 영성체 오전 11시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할사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사제 구균하 요나 신부

신자회장 김중희 요셉

사제회장 서남철 아브라함



모든 교우는 교회 소식란을 상세히 읽어주시고, 사목 일정과 교우 소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자로 드리는 긴급 소식이나 보고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와 사목

◆ 주간 아침 성찬례

이번 주간(24일-27일) 아침 성찬례는 연휴와 사목단의 관구 전례위원회 참여로 쉽니다.

◆ 설 명절과 추모 성찬례

오늘(22일)은 주일이며 설날입니다. 11시 성찬례는 조상 추모 의향을 담아 드립니다.(추모 봉헌은 우리 성당에 하고, 이후 성모나 안식의 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봉헌 축일 - 양초 축복과 서약서 봉헌

다음 주일(1월 29일)은 주의 봉헌 축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제대와 가정에서 사용할 양초를 축복하고 각 가정에 나누어 드립니다. 1년 봉헌 서약서도 함께 축복합니다.

■ 알림

1. 신자 영접식

다음 주일(1월 29일) 오전 11시 감사성찬례 중

2. 2023년도 봉헌 서약과 기부금 영수증 신청

2023년 회계연도 십일조, 월정헌금, 주정헌금 봉헌 서약을 합니다. 가정에서 받으실 봉헌 안내를 참조하시고 서약서와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교우들의 서약서는 모아서 다음 주일(주님의 봉헌 축일)에 봉헌합니다(봉헌 서약서 제출은 연중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 구관하 신부)

3. 정월대보름 전교우 율놀이

2월 5일(주일) 성찬례 후, 전교우 율놀이(척사대회)를 진행합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즐거운 잔치 준비에도 많은 분의 많은 격려와 참여를 바랍니다.

■ 관구·교구 소식

◆ 관구 전례위원회

1월 25일(수)-26일(목)

◆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

1월 18일(수)-25일(수)

◆ 2023년 교사 헌신 예배 - 예수님과 함께 브런치

일시: 1월 28일(토) 오전 11시 - 오후2시

대상: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담당 교사 / 장소: 안양성당

■ 활동단체

◆ G.F.S. 신년회

1월 29일(다음주일) 오후1시, 3층 성가대실

■ 교우 소식

◆ 꽃봉헌

윤영옥 테레사 교우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 생일을 축하합니다

강가라연(24일) 이난희(25일) 이보연(26일)

◆ 어머니회 선교기금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8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2천원
- 엿기름 600g 4천원 - 녹두 800g 2만원
- ※ 판매 수익금은 타 지역교회와 외부 선교단체를 위한 선교기금으로 사용합니다.)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헌금

김영해 김용학 김재현 김종희 류인경 변진선 송미경 신명식 심순덕 유호애 장분순 주창순 최종주

■ 주정헌금

김경아 김도휘 김삼홍 문해와 박남미 변금숙 변진선 송미경 송미정 신희숙 심종은 심주민 유권열 유희주 윤선구 윤영옥 윤영자 이정희 이광자 이성빈 이은미 이정숙 전병도 주애다 최유정 추형두 한부순 무명2명

■ 감사헌금

김종현(범사) 손정자(범사) 신명식(설 조상추모) 신승지(생일) 최종주(설 조상추모)

■ 선교특별헌금

김재현 김진선 박영수 서남철 송종익 안창희 윤영자 이난희

■ 기타헌금(미사 헌금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헌금

■ 예수사랑

김용학

성공회 영등포 성당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헌금) 일반 · 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 선교 특별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47

† 기도해 주세요 †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은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채옥순 최종주 유호애 김복근 이순환 김경수

■ 장례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열(캐나다)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양승윤 박정호

■ 유 학 이재성(독일) 이사빈(독일)

■ 새교우 김경한 김도휘 전인재 배하은 이혜진 이나라

신앙의 빛깔 - 우리 성당의 색과 뜻

‘빛깔 난다’는 말이 있지요. 환하고 건강하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성공회는 빛깔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 색깔에 뜻을 담아 우리 삶을 화사하게 만드는 신앙 전통입니다. 우리 성당의 색깔을 즐기며 이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빨간 정문 - 우리 성당 정문은 큰 문틀을 덧대고 선홍색을 칠해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빨간 문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문설주에 바른 피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천사가 이를 보고 ‘넘어가’(과월) 그 집은 화를 면했습니다. 교회는 이를 되새겨 성당 문을 붉게 칠하기 좋아했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알렸습니다.

푸른 후문 - 후문 공간이 푸른 초장이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되새깁니다. 성당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람을 초대하여 편하게 쉬고, 하느님의 사랑에 머물며 친교하는 곳입니다. 녹색의 공간은 언제나 마음을 다스리고 편안하게 합니다.

파란 제단 - 성전 제단에 파란 카펫이 깔렸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중세 화가 프라 안젤리코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완벽한 색깔을 파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전해지는 성모 수태고지 그림에서 하늘과 성모 마리아에게 파란색을 입혔습니다. 그의 예수님 그림 배경도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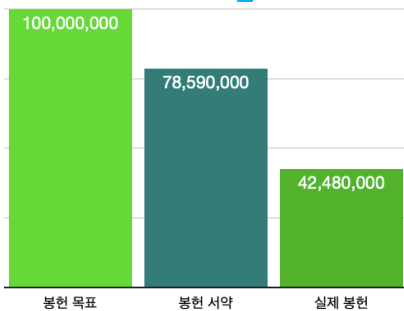
파란 색 카펫은 우리 성당의 수호성인 성 크리스토퍼를 되새겨줍니다. 소년으로 변한 예수님을 무릎에 태워 강을 건넌 뜻을 담으려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모시고 생명의 바다를 건너 하늘나라로 향하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단 바닥을 붉은색으로 장식한 것은 미국 개신교의 관습입니다. 상징이 거의 없는 개신교 예배당에서 앞쪽을 붉게 물들여 예수님의 피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회나 천주교회 등에도 일부 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당은 이미 구원의 붉은 정문 색깔로 그 뜻을 충분히 드러내었습니다.



화사한 성당과 아름다운 성전처럼, 우리 모두 빛깔이 예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특별 봉헌 현황



봉헌 목표액: 1억원 (2023년 12월까지)

봉헌 서약액: 78,590,000원 (1월 15일 현재, 서약자 58명)

봉헌 누적액: 42,480,000원 (1월 15일 현재)

❖ 섬기는 교우들 ❖

교회위원 구정에 번금숙 선병순 신한중 윤영옥 전병도 조진성 추경민 한재엽
원로위원 서세륜 유호애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이종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한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엽
반주 고아람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정희 이난희 이광재마리아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입당성가(선다)	♪ 255장	다함께
정심기도	✧ 244	집전자
죄의고백	✧ 284	다함께
영광송(C곡)	✧ 246 / ♪ 81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대로 번영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하는 별세한 이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읽는다) 민수 6:22-27 말은이
시편 시편 89편 다함께



- 주여, 내가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 당신의 미쁘심을 대대로 찬양하리이다.
- 당신께서 다짐하신 이사야,
○ 그 미쁘심은 하늘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이다.
- 하늘이 당신 것이오니, 땅도 당신의 것,
○ 땅과 그 안에 담긴 것 모두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며,
- 북녘과, 남녘을 만드신 이도 당신이오니
○ 다불산도 헤르몬산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옵니이다.
- 복되여라, 주님께 만세 부르는 백성
○ 그들이 걷는 길을 당신의 환한 얼굴이 비춰주시니
- 날마다 그 이름 높이 기리고
○ 당신의 정의로 사기도 드높입니다.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 독서(읽는다) 야고 4:13-17 말은이
증계성가 성가대 특송
복음환호송(B곡) ✧ 284 / ♪ 56 말은이
복음서(선다) 마태 6:19-21, 25-34 말은이

설교(읽는다) 말은이
니케아신경(읽는다) ✧ 249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선다) ✧ 284 다함께
봉헌성가 ♪ 254장 / G.F.S. 회 다함께
예물기도 ✧ 284 말은이
성찬기도 (4양식) ✧ 257
거룩하시다(C곡) ✧ 267 / ♪ 82 다함께
마침영광송 ✧ 269 /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C곡) ✧ 270 / ♪ 83 다함께
영성체(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 166장 다함께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가 별세한 조상들의 영혼을 기념하여 이 찬미의 제사를 드렸사오니, 주님의 자비로 마침내 구원을 얻은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선다) ✧ 285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 388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1월 22일)		다음 주일 성찬례 (1월 29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설 교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1독서	김태영	서남철	김태영	선병순
2독서	우영현	김민경	서정민	김종희
대 도	이경희	변금숙	신명식	한재업
십자가	윤용환	이종환/윤영옥	박해웅	이용해/신환중
다음 주일 1월 29일	전례독서 말라 3:1-5 시편 24:(1-6)7-10 히브 2:11-18 루가 2:22-40 성 가 입당 278장 봉헌 507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483장			
성 당 청 소	1월 28일 유빌라테회2조 성하준 이현정 이자영		2월 4일 천령회 김태영 한예지 김건우 조용현 신승지 정민경 정희진 김예진	